

상위권 싸움이...태극낭자들은 왜 '에비앙 챔피언십'에 강한가?

'에비앙, 한국인들만의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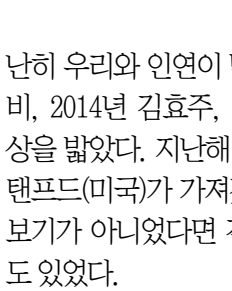
(에비앙 챔피언십 홈페이지 뉴스 'ALL KOREAN BATTLE')

3R 김효주-박성현-고진영·박인비순 산악 지형의 코스 우리나라와 닮은꼴 심한 경사, 샷 정확한 한국선수에게 유리 마음 편한 선후배들 서로 격려 큰 힘도

'ALL KOREAN BATTLE(한국인들만의 전쟁)

28일(한국시간) 3라운드를 마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에비앙 챔피언십 공식홈페이지에 이런 제목의 뉴스가 올라왔다. 김효주와 이미향이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사진과 함께 "사보야드 페어웨이에서 최근 10년 사이 5번째 한국선수의 우승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2014년 61타 코스레코드를 세우며 우승한 김효주가 54개의 홀을 15언더파 198타로 마쳤다. 세계랭킹 1위 박성현은 1타 차 2위고, 추격자 고진영과 박인비는 4타 차이다. 이번이 없다면 최종라운드는 김효주와 박성현의 대결이 될 것"이라며 한국선수의 우승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신지애가 2010년 한국선수로는 첫 우승을 차지한 이후 에비앙챔피언십은 유



김효주 박성현

Table with 4 columns: Year, Rank, Player Name, and Score. Lists winners and runners-up from 2010 to 2019.

난히 우리와 인연이 많았다. 2012년 박인비, 2014년 김효주, 2016년 전인지가 정상에 밟았다. 지난해 우승컵은 안젤라 스탠프드(미국)가 가져갔지만 10년 홀더를 보기가 아니었다면 김세영의 몫이 될 수도 있었다.

이 뿐이 아니다. 2010년부터 에비앙챔피언십에서 한국 선수들이 해마다 최소 3명 이상이 톱10에 들었다. 올해도 그 흐름은 변함없다. 3라운드까지 6명이 톱10에 있다. 여기서 드는 공금증이 있다. '왜 한국 선수들이 에비앙챔피언십에서 좋은 성적을 낼까'. 이는 최근 방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박세리 여자대표팀 감독에게 물어본 것과 비슷하다.

양챔피언십은 프랑스의 산악지대에서 열린다. 페어웨이가 좁고 평탄하지 않다. 공을 페어웨이 한가운데로 쳤다고 해도 지형 때문에 공이 발보다 위에 때리는 발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가 생긴다. 우리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 경험이 적은 다른 나라의 선수보다 유리할 수 있다.

경기가 열리는 에비앙 리조트클럽의 그린도 미국과는 조금 다르다. 아스팔트 표면처럼 엄청나게 딱딱하지 않다. 대신 경사와 굴곡이 심하다. 그린에 공을 받아주기는 한다. 아이언 샷이 정확하면 퍼트하기 편한 곳에 공을 올려놓을 수 있다. 우리 선수들은 아이언 샷이 기계처럼 정확하다.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레슨을 받아서 폼도 좋고 정확성이 뛰어나다.

한국 선수들이 워낙 상위권에 많다보니 같은 조에서 함께 경기하는 경우가 잦다. 숙소에서도 함께 지내는 마음편한 선후배와 라운드하며 메이저대회가 주는 중압감을 쉽게 털어낼 수도 있다. 결국 이런 부분들 덕분에 에비앙챔피언십은 한국 선수들의 잔치가 되고 있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한국골프 유망주 김근우 '영건스 매치플레이' 우승



김근우

한국남자골프 최고의 '강심장' 유망주는 김근우 (17·중산고 2학년)였다. 김근우는 28일 강원도 춘천시 엘리스안강촌 컨트리클럽(파72·6575야드)에서 열린 제5회 영건스 매치플레이 결승전에서 임준형(16·동북고 2학년)을 연장에서 꺾고 정상을 밟았다. 장차 한국남자골프를 책임질 143명이 총출동한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하고, 장학금 500만 원과 국가대표 선발전 포인트 50점을 모두 가져갔다.

김근우와 임준형은 전반 내내 팽팽한 승부를 벌였다. 파5 8번 홀까지 동타로 맞서면서 리드를 쉽게 내주지 않았다. 소강상태를 이루던 경기는 9번 홀(파4)부터 접전 양상으로 변했다. 김근우가 파 퍼트를 놓치면서 임준형이 한 홀을 가져갔고, 11번 홀(파5)에선 임준형의 버디 퍼트가 홀로 작행하면서 격차가 2홀로 벌어졌다.

그러나 김근우는 17번 홀(파3)과 18번 홀(파4)에서 연달아 장거리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고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같은 홀에서 펼쳐진 연장 첫 번째 홀에서 다시 파를 잡아 보기를 기록한 임준형을 눌렀다. 현재 국가대표 상비군으로서 올해 한국 C&T배와 그린배를 차례로 제패했던 김근우는 "17번 홀 버디 퍼트를 앞두고 '내가 버디를 잡으면 마지막 홀까지 갈 수 있다. 포기하지 말자'고 다짐했다"면서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등수 하나가 모자라 7위를 해서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는데 올해 꼭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춘천 |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김신욱 이번엔 헤트트릭...4경기 연속골 폭발

상하이, 슈퍼리그 3연승 12위 경창

김신욱(31·상하이 선화)이 또 터졌다. 이번에는 헤트트릭이다. 김신욱은 27일 중국 상하이 훙커우 스타디움에서 열린 슈퍼리그 20라운드 광저우 푸리와 홈경기에서 후반에만 3골을 몰아쳐 5-3 승리를 이끌었다. 중국 진출 이후 4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불러준 최강희 감독을 미소 짓게 했다. 3골·1도움으로 맹활약한 김신욱을 앞세운 상하이는 리그 3연승으로 허베이를 13위(승점 20)로 밀어내며 12위(승점 21)로 뛰어올랐다.

1-1로 맞선 전반 18분 지오반니 모레노의 역전골을 도운 김신욱은 후반부터 공격 본능을 뽐냈다. 후반 13분 코너킴을 머리로 연결해 3-2 역전을 만들었고, 2분 뒤 모레노가 찰러준 패스를 오른쪽으로 밀어 넣어 추가골을 터뜨렸다. 후반 31분에는 다시 한 번 코너킴 상황에서의 헤딩으로 헤트트릭을 완성했다.

김신욱은 이적 이후 리그에서 매 경기



상하이 선화 김신욱(오른쪽)이 중국 진출 이후 리그 4경기에서 연달아 골 폭발을 터뜨렸다. 27일 훙커우스타디움에서 열린 광저우 푸리전에서는 헤트트릭으로 팀의 5-3 승리를 이끌었다. 김신욱이 팀 동료와 인사하며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골을 넣고 있다. 12일 허베이 화사전에서 데뷔골을 기록한 김신욱은 16일 허난 전에 전과 21일 베이징 런허전에서 1골씩을 터뜨렸다. 이날 3골을 추가한 그는 4경기에서 6골로 스트라이커로서의 존재감을 뽐냈다. 24일 톈진 테다와의 FA컵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았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발등에 불' 제주, 이근호·임상협 임대 수혈

풀짜 인천도 외인 마하지·케힌데 영입

2019시즌 K리그 여름 선수이적 시장이 마무리됐다. 올해 마지막 전력보강과 팀 리빌딩의 기회인만큼 많은 관심이 쏠렸다. 특히 하위권에서 생존 다툼을 벌이는 팀들의 행보가 적극적이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10위 제주 유니타드와 풀짜(12위) 인천 유니타드의 변화가 많았다.

제주는 전 포지션에 걸쳐 8명을 데려왔다. 공격진에 이근호와 임상협을 각각 전복 현대, 수원 삼성에서 임대로 수혈했고 인천 남준재를 트레이드 영입해 나이지리아 공격수 오사구오나와와의 호흡을 예고했다. 울산 현대에서 든든히 뒷문을 지킨 골키퍼 오승훈을 데려온데 이어 최규백을 일본 J2리그 V-바렌 나가사키로부터 임대해왔다. '생존 양' 인천도 절박하게 움직였다. 장운호와 명준재를 전복에서 임대한 뒤 남준재 대신 김호남을 영입해 변화를 꾀했다. 여성래를 경남FC에서 임대해 수비를 강화했

다. 각각 호주, 터키에서 뭉 마하지(미드필더)와 케힌데(공격수)를 전반기를 책임진 공꾸영(베트남), 하마드(스웨덴·이과 중 국적)와 바피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11위 경남FC는 외국인 라인업을 조정했다. 조던 머치와 계약을 해지하고 네게바를 방출한 자리에 지난시즌 득점 2위 제리치를 강원FC에서, 오스만을 영입했다. 상위 스플릿 진입을 1차 목표로 삼은 포항스틸러스도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 수비형 미드필더 최영준을 전북에서 임대했고, 독일 분데스리가를 경험한 일류체코를 데려왔다. 선두경쟁을 벌이는 전북과 울산은 활발한 이탈에 비해 보강은 적었지만 꼭 필요한 투자를 했다. 김신욱이 상하이 선화(중국)로 떠난 자리에 포항에서 영입한 김승대로 채운 전북은 브라질 공격수 호사와 중앙수비수 권경원을 각각 알 나스르(이탈레 미리트·UAE), 톈진 톈하이(중국)에서 임대했다. 울산은 J리그 빗셀 고베에서 뭉 국가대표 수문장 김승규와 아시아쿼터로 측면 풀백 데이비슨(호주)을 영입했다. 남창현 기자

sports21 스포츠투데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야구 기록실 (27일) 테이블

경기결과 테이블

토요일 경기결과 테이블

경기 예고 아마추어 경기예고 (29일) 테이블

메이저리그 (28일) 테이블

아마추어 경기결과 일요일 경기결과 (28일) 테이블

배구, 축구, 테니스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예고 테이블

배구, 축구, 테니스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예고 테이블